

2013년 현충일 특별집회 표어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공급해야 하고,
지방이라는 합당한 터 위에서 그리스도의 살아 있는 표현인
교회와 함께 서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부담이고 우리의 사역이며 우리의 전쟁이다.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의 중심 이상은 우리의 내용으로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은 가장 소중한 결과는 우리가 그분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인 것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비결로서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이제 그분께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어,
한 새사람인 몸의 건축을 위하여 혼이 변화됨으로
생명이 성장하기를 추구해야 한다.

2013년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현충일 특별 집회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

메시지 1 이상과 위임

성경: 골 1:25-26, 행 9:4-6, 22:14, 26:16, 18-19

I. “내가 ... 사역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 골 1:25.

- A. 하나님의 말씀은 신성한 계시이며, 이 말씀은 신약이 기록되기 전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 B. 신약에서 사도들, 특별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했다 — 골 1:25, 2:2, 엡 3:3-4.
- C.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이 비밀’은 2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격이다.
 - 1. 이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 곧 머리와 몸에 관한 것이다 — 엡 5:32.
 - 2.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비밀이 밝혀짐으로써, 신성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었다 — 골 1:25.
- D.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의 계시와 관련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했고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에게 완전히 계시해 주었다 — 엡 1:10, 3:9, 딤후 1:4.
- E. 오늘날 우리의 체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삼일 하나님의 표현을 위해 합당한 교회생활이 산출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 갈 2:20, 엡 3:17상, 1:22-23.
- F.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공급해야 하고, 지방이라는 합당한 터 위에서 그리스도의 살아 있는 표현인 교회와 함께 서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부담이고 우리의 사역이며 우리의 전쟁이다 — 고전 15:45하, 1:2, 12:12-13, 27.

II. “주님, 누구십니까?” — 행 22:8.

- A. “... 하나님께서 ... 그분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 갈 1:15하, 16중.
 - 1.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은 그분의 아들을 우리 안에 계시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그분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요 17:3, 3:16)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요 1:12, 갈 4:5-6) 하기 위한 것이다.
 - 2.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살아 계신 인격을 우리 안에 밝혀 주고 계시해 주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다 — 갈 1:15하, 16, 고후 3:14-18, 4:3-6.
 - 3. 성경의 초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살아 계신 인격이다. 이분은 삼일 하나님의 체현으로서 우리의 영 안에서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으로 실재화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분을 누리고 그분의 풍성에 참여하며 그분을 살기 위한 것이다 — 고전 15:45하, 고후 3:17, 빌 1:19, 갈 6:18.
- B.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 행 9:4하, 5하.
 - 1. 여기에서 ‘나’는 단체적인 ‘나’이며, 주 예수님과 그분의 모든 믿는 이로 이루어진다.
 - 2. 이것은 우주 가운데 독특한 계시였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주 예수님과 그분의 믿는 이들이 위대한 한 사람, 곧 놀라운 ‘나’라는 것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3. 단체적인 ‘나’에 대한 계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인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사울의 장래의 사역을 위해 그에게 깊은 인상과 영향을 주었고, 그의 장래의 사역을 위하여 견고한 기초를 놓은 것이 분명하다 — 엡 5:32.
- C.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보여 줄 일에 대하여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 — 행 26:16.
 1. 사역자는 사역을 위한 것이고, 증인은 증언을 위한 것이다 — 행 13:2, 14:26.
 - a. 사역은 주로 일, 즉 사역자가 하는 일에 관계된다 — 행 13:2, 14:26.
 - b. 증언은 인격, 즉 증인의 존재와 관계된다 — 행 1:8, 23:11.
 2. 그리스도는 그러한 일들을 그 내용이신 그분 자신 없이 바울에게 계시하신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그 모든 이상 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보았다. 주님은 바울에게 더 많은 것들을 계시하실 것이고, 그러한 것들 안에서 주님 자신이 바울에게 나타나실 것임을 지적해 주셨다 — 행 22:14-15, 엡 1:17.
- D.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미리 그대를 선택하시어, 그분의 뜻을 알게 하셨고”(행 22:14).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의 충만, 곧 그분의 표현이 될 한 몸을 얻으시는 것이다 — 롬 12:2, 5, 엡 1:5, 9, 11, 22-23.

III. “주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 행 22:10.

- A. “일어나 시대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을 말해 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행 9:6)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사울의 지식과 연관된다 — 골 1:24.
- B. “이것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나를 믿음으로써 죄들이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있는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 행 26:18.
 1.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둠에서 빛 안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 안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 행 26:18상, 골 1:13.
 - a. 사탄의 권세는 어둠에 속한 사탄의 왕국이다 — 마 12:26, 요 12:31.
 - b. 하나님 안으로 옮겨지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곧 빛에 속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 요 3:5, 요일 1:5.
 2. 죄들이 용서받는 것이 신약 회년의 모든 축복의 기초이다 — 행 26:18하.
 3. 우리는 눈이 떠지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진 결과로 유업을 받는다. 이 유업은 삼일 하나님 자신과 그분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과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것과 그분께서 구속된 자기 백성을 위해 행하실 모든 것이다 — 행 26:18하, 골 1:12, 엡 1:13-14, 벧전 1:4.
 4. 신성한 유업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있다. 이러한 거룩하게 됨은 위치적이지 기질적인 것이다 — 행 26:18하, 마 23:17, 19, 롬 6:19, 22.

IV. “내가 하늘에 속한 그 이상을 거스르지 않고”(행 26:19). 이 이상 안에서 사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시기 위해 삼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변화시키신 백성 안으로 그분 자신을 분배하시는 것에 관한 신성한 것들을 보았다 — 롬 8:11, 엡 4:16, 1:10, 3:9.